

삶의 어려운 고비에서 체험한 감사와 나눔의 마음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홍일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신길웅 건축사(79세).

신길웅 건축사는 우리나라 도시의 현재를 만든 건축가다. 대한민국 산업화 시대를 이끈 주역으로 활약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 온 그는 문화예술이라는 전혀 새로운 영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화가인 아내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미술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문화예술의 세계에 뛰어 들었다. 서양화가로서 이름을 알리는 동시에 수필가로도 등단했다. 건축가로, 화가와 수필가로 산업과 예술의 영역을 자유로이 넘나들던 신길웅 건축사는 2022년 직장암 판정을 받았다. 힘겨운 수술과 항암치료를 견뎌내며 그는 한 가지 큰 결심을 했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 애

쓰는 의료진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서울아산병원에 후원을 결심한 것이다.

문화예술로 풍성한 인생 2막

‘홍일건축&청람갤러리.’ 신길웅 건축사는 사무실 간판은 그의 두 가지 직업을 담고 있다. 건축사 면허를 따고 홍일건축사사무소를 연 지 50여 년, 미술에 매료되어 서양화가로 활동한지 벌써 30년을 바라보고 있다. “건축은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건축을 하며 사물을 관찰하고 이를 해석하는 힘이 길러졌고, 자연스럽게 화폭 위에 옮겨 담게 된 것 같습니다. 미

술을 전공한 아내는 집에서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정물을 그리고, 저는 풍경화를 주로 그리니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의 미술 작업은 금세 취미의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각종 미술대전에 입상해 화가로서도 명성을 쌓으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인협회인 광진예총을 설립하는데 참여했고, 2008년에는 광진문화원장을 역임했다. 2006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부부 전시회도 열었다.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자녀들도 건축가, 성악가, 화가로 활동하며 예술가 집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지금도 그의 사무실에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모임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2019년에는 수필가로 등단하고 매주 화요일 글을 쓰고 토론하는 문학회 모임 활동을 하고 있다.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 ‘건축과 미술의 만남’이라는 책으로 펴낼 계획도 갖고 있다.

“건축과 미술처럼 글도 일맥상통하는 감성이 있어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면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고, 글을 쓰는 사람은 글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표현하고 즐기는 것이 문화예술의 시작입니다. 은퇴 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문화예술 강좌를 들으며 배우고 취미생활을 하면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풍요로운 인생 후반기를 누리려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한 후원

남다른 인생 후반기를 누리던 신길웅 건축사에게 얼마 전 큰 고비가 왔다. 2022년 직장암 판정을 받으며 수술과 항암치료라는 힘겨운 시기를 겪었다. 건강관리를 잘못했다는 자책과 억울한 마음이 수시로 투병하는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 깊이 자리 잡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의사의 말이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무서운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다행이냐 했죠. 그런데 점점



신길웅 건축사는 30년 가까이 서양화가로 활동 중이다.

다시 생각하게 되더군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고비마다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를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니 오로지 하느님 뜻이다 싶더군요. 비로소 진심으로 ‘일찍 병을 발견해서 수술도 할 수 있었으니 다행이다, 80세까지 턱걸이 했으니 참 다행이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자 병원의 풍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바빠 움직이는 의료진들의 노력, 젊은 나이에 어려운 환경에서 투병하는 안타까운 환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과 의료진, 환자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정했다.

“누구나 다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언제 세상을 떠나더라도 억울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조금씩 주변을 정리하면서 후원을 결심했습니다. 뛰어난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처방했으니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환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의료진이 있고, 그에 힘입어 의학 기술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있으니까 제 병도 발견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료진을 믿고 응원하는 거지요.” 신길웅 건축사는 ‘아산 정주영 설립자의 큰 뜻이 담긴 서울아산병원과 재단이 더욱 발전해 더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기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

글 편집부